

불교사 대가 김상현 교수 추모 세미나 연다

추모사업위원회, 2주기 앞두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화엄사상' 주제

한국불교 사상연구의 대가로 지난 2013년 7월 돌연 세상을 떠난 김상현 동국대 교수를 추모하는 학자들이 모여 국제세미나를 연다.

‘김상현교수 추모 학술출판 사업위원회’(위원장 정병조, 이하 추모사업위원회)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및 사학과와 공동으로 1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화엄의 한국적 전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추모사업위원회는 김상현 교수 타개 이후 2014년 여름, 지인과 제자들로 구성됐다. 김상현 교수와 인연이 깊었던 정병조 금강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제자인 이종수 순천대HK교수가 실무총괄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유족대표로 박태원 교수가, 동국대 사학과와 노태환, 최연식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김종욱, 김용태 교수, 금강대의 권관준, 석갑갑 교수, 차선회의 김종규, 권오근, 지인오 박도훈 교수, 제자인 손성필 교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김상현 교수生前에 친분이 있는 외국 학자들이 국제학술대

회 관례상 지급되는 별도의 발표비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대회 또한 김상현 교수가 연구해 온 화엄사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는 먼저 김용태 동국대HK교수의 사회로 정병조 추모사업위원장과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이 진행된다. 이어 △1발표 김천학 동국대 교수의 ‘법음의 화엄사상 일고찰’ △2발표 여건부(呂建福) 중국 서사사범대 교수의 ‘화엄경과 비로자나 법신불’ △3발표 사토 아츠시(佐藤厚) 일본 센슈대 교수의 ‘의상(일승법계도)의 사상구조와 배경’ △4발표 최연식 동국대 교수의 ‘신라 화엄과 정치’ △5발표 리차드 맥브라이드 미 브리검영대 교수의 ‘State Preceptor Taegak’s “Ch’ ŏn and Founding of the Ch’ ŏn” ae Tradition in Early Koryŏ’ △6발표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 후기 화엄학의 유행과 그 배경’이 이어진다. 발표후 정병삼 속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상현 교수 추모 국제학술대회는 총



2013년 퇴임기념에서의 김상현 교수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월 30일 대회에 이어 2015년 7월 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주최 하에 금강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수 순천대 HK교수는 “별세하실때까지 치열하게 불교와 우리 역사를 연구해 온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후배학자들의 귀감”이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신라 화엄사상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과 가르침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상현 교수는?

1947년 경남 함천에서 태어나, 경상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년 효당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를 접한 김상현 교수는 단국대(1981~8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1985~91년), 한국교원대(1991~97년) 교수를 거쳐 동국대 사학과(1997~2013년) 교수로 재직하며 삼국유사 연구와 화엄사상연구에서 일가를 이뤘다.

특히 1978년 ‘삼국유사로 본 일연의 불교사관’을 통해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퇴보한 역사서가 아님을 역설하고 당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신라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문제’ 등을 펴냈으며 2013년 2월 정년 퇴임했고 그해 7월 21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구하 스님 선양 학술세미나 성료

영축문화재단, 1월 1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

영축문화재단은 1월 1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근대 영축의 흥중조 구하대종사 선양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 사회는 창녕 관봉사 주지 광우 스님이, 세미나 좌장은 흥광표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명대 교수 소운 스님은 ‘일제강점기 통도사 흥중과 개혁실천가 구하스님의 업적’에서 “일제강점기 혼돈의 시대에 한국불교교단과 통도사의 흥중을 짊어진 구하스님은 수행결과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하나의 화두로 귀결시킨 개혁 실천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구하 스님의 행장 분석과 불교사상 연구’,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의 ‘통도사 분표를 통해 본 1920년대 불교계와 김구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구미숙 부산



대 강사,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노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되고, 특히 율원 후학들이 통도사의 훌륭한 분들을 본받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규정 마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

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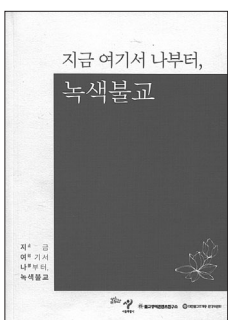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 규정 폐지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이 다.

노덕현 기자

당신의 생태발자국 줄여야 지구가 산다

불교생태콘텐츠팀, 녹색불교를 위한 지침서 발간

최근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생태발자국’ ‘탄소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태발자국은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지수가 높을수록 자연을 파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08년 한국의 생태발자국 지수는 4.6헥타르로 149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보다 1.7배 높고, 독일과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앞으로 환경 운동은 이 같은 ‘생태 발자국’을 줄여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더위와 추위에 익숙해질 것을 비롯해 전력 피크 시간 피하기, 운전 시 불필요한 물건 싣지 않기, 경제 속도 지키기 등을 실천하자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은 ‘이젠, 녹색불교’를 있는 두 번째 버전으로 ‘생태, 에너지, 기후변화’, ‘녹색불교’, ‘이웃종교들의 대사회활동’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지(止)·급(如)·기(起)·수(去)’의 의미는 욕망을 멈추고 여려한 마음으로 철나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언제 어디서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불자들이 먼저 나서줄 것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여나, 녹색불교)는 2014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공모사업 보조금과 과제중 환경위원회의 후원으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가 제작·발행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삼국유사> 파른본 보물로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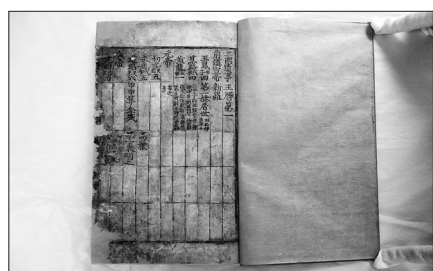
1월 5일 성보 16건 보물 대거 지정... 1600~1700년 작품들

고(古) 파른 손보기(1922~2010) 박사 유족이 연세대박물관에 기증한 삼국유사 판본이 보물로 지정된다. 또 총 16건의 불교문화재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삼국유사> 권1~2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16건과 일반 문화재 1건을 1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지정된 <삼국유사> 파른본은 그동안 삼국유사의 저본이었던 ‘중종 임신본’보다 앞서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삼국유사 판본으로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는 광역대 소장본(국보 306호), 규장각 소장본(국보 306-2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파른본은 2권 1책 만이 있지만 임신본의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을 비교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 문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1605년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인 원오 스님의 역작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역시 1610년 원오 스님의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1652년 무염 스님의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88년 민원 스님을 비롯한 죽종·경찬·각립 스님 등 총 4명의 화



승이 그린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삼불도’ △1727년 백기 스님과 영취 스님이 수록재 의식 때 조성·봉안한 ‘월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1741년 수화승 세판 스님이 조성한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 ‘영천 은해사 영불왕생첩경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1636년 조성대 승장계 범종의 사료 가치를 지닌 ‘보은 법주사 동종’ △1651년 목서기가 확인된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1654년 철학·전승·도균 스님이 제작한 ‘부여 무량사 삼전패’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연해) 권하 1-1~2, 2-1~2’ △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과 △당(唐)나라 실차난타가 전한 수장 4면(1098) 판본의 국내 전래본 중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도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티벳대장경역경원, ‘현대티벳어’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현대 티벳어 특강을 실시한다.

티벳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이번 현대 티벳어 특강은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활동하는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박은정 정임연구원이 현대 티벳어의 기초문법과 회화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오랫동안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전

달할 계획이다.

교육 기간은 1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 있으며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다.(054)770-2893

노덕현 기자

제142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는 1월 17일 오후 2시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에서 제 142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와 신년인사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강석근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의 ‘신라 무덤과 생명’,

윤형원 국립전주박물관 학계연구사의 ‘신라 흥노무덤 출토품 비교검토’ 등이 발표된다. 발표문과 자료 등은 신라사학회 홈페이지(http://sillasa.koreanhistory.or.kr)에 공개된다. (031)709-7850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기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성,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1월 26일까지

◆개강일시 : 2015년 1월 26일(일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5년 동산불교대학 46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불교학과 [2월 7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 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대승불교와 정토 6. 밀교와 천수경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황승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영선교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2년차	과 목	7. 불교개론(아람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람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최중석교수, 이미영교수, 윤영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호규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영준교수, 묘주스님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5일(목)]
• 불교다학과의 [3월 10일(화)]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일반, 통신반 각 40명)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1월 1일부터

■문 의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대학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